

카멀라 해리스의 기후위기 대응

기후환경이야기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전 의장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카멀라 해리스(Kamala Harris), 지난주 대관식을 마쳤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 아시아계 이민 2세 흑인 대통령이 탄생할지 세계적 관심사다. 전당대회장은 현직 대통령, 두 사람의 전직 대통령을 포함 기라성 같은 민주당 지도자들이 총출동했다. 해리스를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두 달 보름 앞으로 다가온 11.5 대선이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적수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공화당 후보, 미국 유권자들의 상당한 지지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다.

두 후보의 정책 중, 기후 환경 에너지 분야가 가장 차이가 나는 정책 중 하나다.

트럼프는 지난 대통령 시절부터 일관되게 기후변화를 부인하고 무시했다. 지금도 '기후변화는 사기(hoax)'라고 여기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이나 청정 재생에너지와 전기차의 보급같은 이슈는 그의 안중에 없다. '드릴, 베이비, 드릴(Drill, Baby, Drill)'이란 슬로건 아래 육상이든 해상이든 뚫어서 석유 가스를 개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풍부한 화석연료를

바탕으로 경제를 진흥시키면 된다는 인식이다. 초대형 석유가스 기업들은 대환영이다. 지금 그들은 트럼프 당선 이후 추가 이익을 계산하고 있다. 환경 생태계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될 것이다.

해리스는 트럼프의 정반대 편에서 있다. 바이든 정부의 부통령으로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제정하고 시행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 법에 근거해 수천 억 달러의 정부 재정을 기후위기 대응과 청정 재생에너지, 전기차 등에 투자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2030년 50% 온실가스 감축과 2050 탄소중립이 세계에 천명한 미국의 목표다. 해리스는 이를 달성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바이든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IRA가 세계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후법안'이라고 했다. 바이든은 그의 유산을 해리스가 계승 발전시켜나갈 것임을 확신한다. 해리스는 지난해 두바이 COP28(유엔 28차 기후총회) 연설에서 '지속적인 진전은 싸움없이 불가능하다'며 '우리의 무대음이 수십억의 미래세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박수갈채를 받은 바 있다. 연설 상원의원 시절 해리스는 '그린 뉴딜(Green New Deal)'과 '100% 재생에너지(RE100)' 옹호자였다. 20년 전, 샌프란시스코 시의 지방검사로서 '환경정의 부서'를 신설하는 족적이 있고 이후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으로서 엑슨 모빌(Exxon Mobil), BP 등 거대 석유회사들의 불법을 기소하고 처벌하는 등 당찬 모습을 보여준 적도 있었다.

미국의 환경NGO들도 해리스 후보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들은 트럼프를 '기후재앙이자 지구재앙'으로 진단하고 있다. 시에라 클럽(Sierra Club), 환경보전유권자연맹(LCV), 천연자원보호협회(NRDC) 등 환경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미국 역사상 어떤 행정부보다 기후위기와 환경적 불의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일을 했다'며 기후환경의 옹호자인 해리스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시에라 클럽의 벤 질러스(Ben Jealous) 사무총장은 '해리스는 기후와 지구를 위한 용감한 옹호자'며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으로, 부통령으로 기후위기와 환경정의를 위해 싸우고 우리의 건강과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치켜세웠다. 시에라 클럽은 120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단체로 미국 전역에 38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환경단체다. 이들 NGO들은 대선이 끝날 때까지 회원들과 함께 시민들의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에 나설 계획이며 특별히 경합 주(Swing States)에서 젊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해리스와 트럼프. 오는 11월 초, 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두 후보 중 누군가 당선되면 기후와 환경, 생태계 그리고 지구는 위기가 가속화될 것이다. '재앙'을 막고 '희망'을 선택해야 할 터인데 선택은 미국 유권자들의 몫이다.

社說

'공공기관 시즌 2' 제자리걸음 안돼

尹정부 국정과제 불구 지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사업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답보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상반기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22대 총선 이후로 미뤘다. 그러나 총선이 끝난지 4개월 넘게 지났지만 정부 계획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그사이 정부의 기초도 달라지고 있다. 실제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공공기관이 각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도움은 된다"면서도 "그러나 각 지역에서 기대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4월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 120대 국정과제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포함했다. 같은 해 12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360개 공공기관에 한해 빠르면 2023년 하반기에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내용과 사뭇 달랐던 태도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1차 이

전 성과 평가' 영역이 마무리되는 오는 11월 이후에나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 계획을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지자체들의 희망고문만 계속되는 형국이다. 전남은 농수산 융복합 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해 농협중앙회 등 50여개 공공기관 유치를 목표로 삼았다. 광주시도 파급력 높은 기관을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전인재개발원, 한국공항공사 등 지역산업 연관기관 유치를 집중할 방침이다. 시·도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총력 대비에 나서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진 혁신도시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지방 균형 발전 사업이다. 2005년 전국 10개 혁신도시가 지정된 뒤 2019년까지 국비 10조 원을 들여 175개 공공기관이 이전했다. 공공기관 이전은 지방 소멸을 늦추고 수도권과 지방 불균형을 해소하는 첫 걸음이다. 공공기관 이전 시즌 1을 통해 인구 증가와 일자리 창출 등 효과가 확인됐다.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시금고 선정 '지역공헌도'에 달렸다

광주시, 시금고 선정 공모

8조2100억원 규모의 광주시 예산과 기금을 관리할 금고 선정이 본격화됐다. 광주시는 올해 12월31일자로 금고약정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차기 시금고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금융기관은 다음달 23일과 24일 신청서와 제안서를 광주시 세정과로 직접 접수하면 된다. 앞서 다음달 3일 설명회를 진행한다. 금고 신청은 광주지역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으로 1금고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2금고는 1금고 신청 가능 은행과 지역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광주시는 10월 중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고를 지정하고 11월 금고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번 금고 선정은 1·2금고를 구분해 각각 신청받고 금고별 선순위 은행을 금고로 선정하는 분리공모 방식으로 추진한다. 통합공모 방식에서 1·2금고 따로 선정으로 바뀜에 따라 경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특히 평가기준 중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안정성(27점), 광주시 대출 및 예금 금리(20점), 시민이용 편의성(24점), 금고관리 능력(22점)은 경쟁은행간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평가다. 결국 지역협력사업비(7점)에서 순위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향토은행이라는 이점과 활발한 지역 협력사업으로 광주은행은 1969년부터 줄곧 1금고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하지만 2021년 기준, 광주은행의 협력사업비가 40억원으로 책정되면서 "너무 낮다"라는 지적이 의회 행정감사에서 나왔다. 1금고 은행의 지역 협력사업비가 과거 대비 크게 줄어든 게 원인이다. 결국 올해 시금고 선정은 지역공헌도가 당락을 결정지을 것이라는 의견이 높다. 1금고를 지켜왔던 광주은행의 독주도 장담할 수 없다. 막강한 자금력을 앞세워 지자체 금고 진출을 노리는 대형 시중은행과 향토은행 간 몰입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세수가 갈수록 줄고 있다.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광주시 입장에서 시금고 경쟁에 뛰어든 은행들의 '지역공헌도'를 높일 좋은 기회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25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해방 80주년 기념 퍼레이드가 열려 2차대전 당시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국기를 들고 행진하고 있다. 1940년 6월 독일에 항복했던 프랑스는 1944년 6월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 8월25일 나치로부터 해방됐다.

AP/뉴시스

서석대



2010년 개봉한 류승완 감독의 영화 '부당거래'는 건설업자를 스폰서로 두고 비리를 저지르는 주양 검사(류승범)와 뇌물을 받고 불법 청탁을 들어주는 부패 경찰 최철기 반장(황정민)이 주인공이다.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건설업자들에게 뇌물을 받고 그들의 범죄를 숨겨주고, 상대방은 표적수사하는 검사와 경찰의 대립구도가 실감나게 그려졌다. 영화에 긴박감을 불어넣는 요소로 어린이 연쇄 살인사건이 등장한다. 대통령이 경찰청

을 방문해 신속한 살인범 검거를 지시한 "너, 오늘부터 범인해라" 경찰 고위 간부는 최철기 반장에게 승

진을 약속하고, 최 반장은 조직폭력배 출신 건설업자와 짜고 아동 성폭력 전과자를 범인으로 조작한다. 배우 유해진의 "너, 오늘부터 범인해라"는 명대사가 여기서 탄생했다.

검사와 경찰의 뇌물 수수 장면 등 부끄러운 민낯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식사 자리에서 자신에게 불만을 털어놓는 건설업자를 향해 "아니, 검사를 오래 하니깐 대한민국 검사가 아주 X같이 보이시죠"라고 호통 치며 자리를 박차면 서도 명품 시계 선물은 소중하게 챙기는 주양 검사. 업자에게 받은 돈으로 료살롱에서 질펀하게 놀고 있는 매제를 붙잡아 "내 이름 팔아서 양아치들 돈 받아 처먹었냐"고 질타

하면서도 남은 돈은 집에 갖다주라며 뇌물 받는 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최철기 반장.

검사와 경찰을 대표하는 두 주인공 간의 반목과 기싸움도 흥미롭다. 최 반장과 신경전을 벌이던 주 검사는 내사자료 입수를 지시한 수사관이 경찰이 불쾌해한다고 말하자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라고 소리를 지른다.

주 검사의 장인이 등장하는 마지막 장면은 오래도록 여운이 남았다.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검찰청에 소환된 주 검사에

게 장인은 "이 사람이 그렇게 몸조심했어야지. 괜찮아 기죽을 것 없어. 마약 사건 수사 중인 게 있는데 그거 터지면 애기가 묻혀서 잘 풀릴꺼야 걱정하지 말고 어깨 피고 다녀"라고 한다.

검찰과 경찰의 범죄자 비호, 뇌물 수수, 사건 조작,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 등을 노골적으로 다뤘지만, 영화가 과장되지 않고 오히려 사실적이라는 느낌이 드는 건 필자만의 생각일까. 검사와 경찰은 아주 싫어할 것 같은 영화 '부당거래'. 14년 전 영화 속에서 드러난 부당거래가 지금도 판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박성원 편집국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정치부	(062)510-0340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